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한다

임실군, 주거 안정·지역 정착 위해 매달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임실군이 관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생활 기반 지원 및 지역 정착을 위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청년에게 고향사랑기금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기존에 국도비 매칭을 통한 한시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이 2025년 2월 종료됨에 따라 좀 더 많은 무주택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재산 요건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60만원 이하의 월세 거주자이다.

다만, 국토교통부 및 타 지자체 등에서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은 지원하지 않는다.

9월 공고를 통하여 지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10월 대상자를 확정하여 월세를 매달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이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관내 유제품 학교급식 지원 사업과 빈집 재생 사업에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또 하나의 새로운 기금사업이다.

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청년·아동·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외 지자체에 개인이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로, 기부금은 전액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밀착형 사업에 쓰인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사업이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부담을 줄여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금을 바탕으로 군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제18회 순창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화합행사·표창 수여 등 진행

제18회 순창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달 29일 순창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려 600여 명의 이장과 가족들이 함께하며 성황을 이뤘다.

순창군 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땀과 웃음으로 화합을 다졌다.

제18회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달 29일 순창읍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려 600여 명의 이장과 가족들이 함께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대회는 오전 체육경기, 기념식, 오후 화합행사로 나뉘어 하루 종일 다채롭게 진행됐다.

체육경기에서는 다트, 신발던지기, 훌라후프, 고리걸기, 펭귄릴레이 등 5개 종목이 펼쳐져 읍·면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이어 열린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장 13명과 공무원 11명이 도지사 표창과 군수 감사패, 협의회장 표창을 받았다.

오후 화합행사에서는 행운권 추첨과 읍·면별 장기자랑이 이어져 웃음과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

각 마을 이장과 배우자들이 참여한 장기자랑 무대에서는 노래와 춤, 다양한 퍼포먼스가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귀농귀촌인 실용교육 진행

남원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2025년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인 치유요리 & 제과제빵 과정을 1일부터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여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지역민 맞춤형 실용교육 프로그램으로 추진 될 예정이다.

첫 수업에서는 저속노화의 개념과 항산화 및 전통 식재료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실제 요리와 제빵 실습으로 연결하는 시간을 가진다. 교육생들은 직접 건강한 빵과 요리를 만들어보며 생활 속 활용 방안을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9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남원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 정착과 더불어 공동체 유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난달 28일 전남광역치매센터와 전남지역 19개 시·군 관계자들이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남원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확산

전남광역치매센터·전남 19개 시·군 관계자, 남원 치매안심센터 찾아

남원시 치매안심센터(센터장 한용재)는 전남광역치매센터와 전남지역 19개 시·군 관계자들이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남원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치매안심마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남원시의 운영사례를 타 시·군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남원시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환경 개선,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특히, 위급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24시 스마트 돌봄 서비스, 돌봄 미수혜자를 지원하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 등을 추진하며,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그 결과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대응체계 구축과 돌봄 서비스 확산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전남광역치매센터 및 각 시·군 관계자들은 마을 현장과 운영사례를 둘러보고,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한용재 센터장은 "남원시 치매안심마을 운영 경험이 타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자살예방교육·심리지원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은 '1일 1가구 방문사업' 중 안타까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주민, 가족, 그리고 생활지원사를 위로하기 위해 자살예방교육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달 29일,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과 마을회관을 찾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살 신호 인식과 위기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한 자살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보호망을 강화하고, 생명 존중 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커피 100잔을 준비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이어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자원봉사센터, 헌혈 동참 캠페인 전개

남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달 29일, '헌혈로 하나되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제로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혈액 수급의 중요성을 알리고 헌혈 참여를 독려했다.

캠페인은 출근 인원이 많은 축전교 사거리와 장날을 맞아 공설시장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전국모범운전자연합 남원지회와 남원시민경찰연합회가 참여, 직접 시민들에게 헌혈 참여 방법과 혈액 수급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생명 나눔의 의미를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제7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순창군은 최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제7차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신종철 위원장(농협순창군지부장)을 비롯한 위원 11명이 참석해 2024년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안)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2024년에 집행된 지방보조사업 410개의 성과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한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52개 연속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업의 폐지 및 지원 여부를 심의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강진면 지사체 제3차 정기 회의 개최

임실근 강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강준희, 공공위원장 황선희)가 지난달 28일 강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협의체 위원 및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하반기 추진 할 특화사업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복지 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협의체 위원의 역할 등 협의체가 민관 협력 기구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추진할 특화사업으로 노후된 전기콘센트를 교체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주거 안전 지킴이' 사업과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건강식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랑가득 영양가득'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황선희 공공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기가구 발굴에서 지원까지 다양한 영역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